

11장: 최근 미국사회

1. 2012년 대선 일정

1) 당내경선

- 코커스(caucus)와 프라이머리(primary)에서 대의원 선출
- 아이오아 코커스(1월 3일)
- 뉴햄프셔 프라이머리(1월 10일)

- 슈퍼화요일(Super Tuesday)
: 10개주 경선(3월 6일)

- 전당대회
: 최종 후보 확정
: 당 정강 확정
: 공화당(플로리다 탬파; 8월 27일~30일)
: 민주당(노스캐롤라이나 샬럿; 9월 3~6일)

2) 총선거(간접선거)

- 11월 두 번째 화요일 (11월 6일)
- 각 주별 모든 유권자들이 주에 할당된 선거인단 선출
- 각주 선거인단수 = 각주 상원의원수 + 각주 하원의원수
- : 총 선거인수(538명)
- : 캘리포니아(55명), 텍사스(38명), 플로리다(29명), 뉴욕(29명) 하와이(4명), 알래스카(3명)

3) 대통령·부통령직접선출

- 각주 선거인단들 각주 주도에 모여 선출
- 12월 셋째 수요일 다음 첫 월요일 (12월 17일)

4) 제45대 미국 대통령 취임

- 2013년 1월 20일 (고정)

5) 주요 후보

- ① 버락 오바마(민주당)

- 현 대통령

- : 2011년 오사바 빈 리덴 체포 당시 인기 상승하다가 경제 문제로 다시 하락
- : 2012년 중반 이후 경제 회복하면서 다시 상승 중 (50%대)
- : 바이오 등 대체에너지 개발하면서 화석에너지(기름) 가격을 올려 아직도 가장 많이 사용되는 유가 가격 상승 → 인기 하락요인
- : 전국민 의료복지제도인 “오바마 케어”로 인기 다시 상승

② 미트 롬니(공화당)

- 매사추세츠 주지사

- : 자신이 억만장자
- : 미국의 소수종교인 몰몬교도
- : 교육수준 높고, 부유한, 장년층 지지
- : 잭 부시 전 플로리다 주지사 + 밥 도을 전 대통령후보 지지

2. 리먼브라더스와 미국경제

1) 리먼브라더스

- 국제금융회사(1850년 설립)
- 일반 은행과 다른 투자은행
 - : 최첨단 금융기법으로 직접 상품 구입
- 서울 소공동 한국지사
- 약 \$6,000억 부채로 파산(2008. 9. 15)
 - : 파산과 함께 리먼브라더스 모든 주식, 채권 가치 "0"
 - : 이런 거대기업의 파산에 미국 정부가 도움 방법 없다는 점이 미국 경제 전망 암울
- 미국내 투자은행 시대 종말
 - : 메릴린치 투자은행 → Bank of America(BOA)에 합병
 - : 글로벌 주식시장 급락, 각국, 각 기업 신용위험 상승, 유가 하락, 금값 상승
 - : 전세계 금융시장 불안

- 도덕적 해이

- : 미국 정부의 막대한 보조로 위기 극복한 은행들 직원 보너스
- : '골드만 삭스' 직원들 보너스(\$200억) 준비
- : 골드만 삭스
(고급 인력을 유치하려면 그에 합당한 보수를 주어야 한다.
훌륭한 인력들로 수익을 내야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다.)
- : 오바마(월스트리트는 변한 게 없다!)
- : 미국인(분노!)

- 조치

- : 은행 규제완화가 주 원인
- : 은행 규제방안 강구
- : 글로벌 금융개혁
- : 자기자본 규제 강화, 임직원 보수 규제,
파산제도 제도 정비, 은행의 위험투자 규제(헤지펀드 금지),
은행의 무리한 자산 확대 금지

2) 서브프라임 모기지

- 모기지(주택담보대출)
- 서브(밑에, 下)프라임(신용도 낮은 사람들이 빌리는 모기지)
 - : 이자율 높음
 - : 미국 경제가 안정적이고 저금리일(1%)때는 서브프라임의 높은 이자도 잘 갚음
 - : 2007년 초부터 주택시장 냉각 + 금리 상승(5-6%까지)
- 주택시장 냉각 + 서브프라임 빌린 미국인들 이자 잘 갚지 못함
- 은행들 곤란
 - : 씨티은행(\$100억), 메렐린치(\$170억)
 - : 총 손실 추산액 \$3-4,000억 (한국 1년 예산)
 - : 그중에 최대 피해자 가 리먼 브라더스
 - : 미국 경제 침체
 - : 세계 금융시장 네트워크로 긴밀히 연결
 - 거의 모든 세계인들 피해

3) 월스트리트를 점령하라(Occupy Wall Street)(P)

- 2011년 9월 17일부터 뉴욕에서 30명으로 시작

: 매일 수천명 참여

: Bank of America(BOA) 30,000명 직원 해고 계획 발표

(2011. 9. 30)

- 신자유주의 경제위기

: 보통사람 99% : 상위1%

: 월스트리트로 대변되는 금융자본(탐욕)과
세계 금융위기에 대한 분노

: 고학려의 젊은 실업자 동참(실업률 9%; 1,400만명 실업자)

: 대출자들 대부분 학자금 대출받았는데 취업도 안되

- 대선주자 반응

: 오바마(미국인들의 분노가 표출된 것)

: 미트 롬니(시위대가 제곱투쟁을 하고 있다)

3. 낙태

1) 최근 사건

① 낙태반대에 대한 사건 (2009. 9)

- 미시간주에서 제임스 푸이용이 낙태반대 시위 벌이다
총격받고 사망

② 낙태찬성에 대한 사건 (2009. 5)

- 캔자스주에서 낙태 시술을 한 조지 킬러 박사 살해
- 살해범 스코트 로더
“아직 태어나지 않은 아이들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
킬러를 죽인 것은 정당하다. 따라서 나도 무죄”

2) 오바마

- 보수적인 카톨릭계 대학인 노틀담 대학 졸업식 (2009. 5)에서
축사하면서 의도적으로
“여성은 자신의 건강 문제에 대해 스스로 결정을
내릴 수 있어야” 강조

- 한 학생이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
"당신은 손에 피를 묻힌 살인자!"

3) 생명의 행진

- 매년 1월 22일 워싱턴에서 낙태 합법화 판결
(로앤 웨이드 판결) 기념하며 행진
- : "생명은 예외 없이 똑같은 보호를 받아야 함을 기억하라"
- : "단 한 명의 태아라도 의도적으로 살해되는 것은
절대로 정당화될 수 없다"

- 미트 롬니(공화당 대통령선거 후보)
- : 한때 낙태 지지 발언으로 곤욕
- : 낙태시술에 대해 의료보험 적용을 강력 비판
- : 미국가족계획연맹에 대한 세금 지원 차단 공약

- 천광천

- : 중국 시각장애 인권 변호사
- : 2012년 미국 망명
- : 중국 당국의 “한자녀 정책을 이유로 강제 낙태 및 불임수술을 강요” 폭로하여 7년 간 투옥과 가택연금
- : 공화당은 조 바이든 부통령이 2011년 중국 방문시 “중국 정부의 한자녀 갖기 운동을 충분히 이해한다”라는 발언을 생명 경시 풍조로 비난

4. 자연재해

1) 폭풍, 폭우, 폭염

- 미국 동부 강타(2012. 7)

- : 시속 130km,
 - : 40도 이상 폭염
 - : 동북부 (워싱턴DC, 메릴랜드, 오하이오, 웨스트버지니아 등)
비상사태 선포
 - : 13명 이상 사망, 300만 가구 단전
 - : 응급전화, 휴대전화, 인터넷 서비스불통
-
- 서부지역 포함 전국적으로 45개 지역 대형 산불
 - : 야외 바비큐 금지
 - : 폭죽놀이 금지
-
- 7월 4일 독립기념일 행사 취소

2) 카트리나 허리케인 (p)

① 뉴올리언즈

- 유럽에서 대서양을 건너 미국 동부 내륙으로 들어가는 미시시피강 하구에 위치
- : 1830년대 가장 부유한 도시
- : 원래 80%가 해수면 보다 3m 낮아

② 카트리나(2005. 8)

- 원인

- : 열대성 폭풍 → 허리케인
- : 한해 대서양에서 발생하는 열대성 폭풍은 10개, 6개가 매우 위협

- : 섭씨 27도이상 지역에서 발생
- : 약간의 온도 상승도 허리케인 위력 배로 증폭
- : 지구 온난화로 온도 급상승

- 피해

- : 시속 250km
- : 미국 남동부 강타
- : 뉴올리언스 폰차트레인호수 제방 붕괴
- : 도시가 거대한 호수로 변모
- : 샌프란시스코 지진(1906)년 이래 가장 큰 자연재해
- : 2만명 이상 실종(수천명 사망)
- : 수용시설과 폐허로 변한 시가지에서 약탈, 총격, 반화, 강간, 교도소 폭동, 경찰 보는데서도 상점 약탈, 무법천지
- : 원유시설 가동 중단으로 유가 인상

- 한국 교민(2,500명) 이재민

- 복구비용

- : \$300억(9·11사태와 비슷)

5. LGBT

① 의미

– Lesbian(레즈비안), Gay(게이),
Bi-Sexual(양성), Transgender(성전환자)

– 트랜스젠더

: 육체적 성과 정신적 성의 불일치에서 일치하는 방향으로 교정

② 동성애자 권리운동

– 역사적으로 정신질환의 일종으로 간주

: 인구의 약 1-2%

: 19세기 말 시작

: 세계보건기구, 동성애를 질병에서 삭제 (1990. 5. 17)

: 지금은 성체성도 다양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분위기

: 동성간 결혼 합법화 [네덜란드(세계최초), 프랑스, 독일, 벨기에]

: 게이, 레즈비안 유명인사 많음

③ 동성애 관련 주장

- 찬성론자

- : 시대적 흐름, 인정해야
- : 이성간 결합과 동등하게 취급해야
- : 성적 소수자의 권리 보호해야

- 반대론자

- : 아이 출산 불가능
- : 사회질서의 근간 와해
- : 종교에서는 죄악으로 판단
- : 호주 카톨릭체는 “동성결혼에 대한 전쟁” 선포

- 노스캐롤라이나주

- : 2012. 5. 8
- : 주민투표로 동성간 결혼 금지 법안 통과
- : 남자와 여자간의 결혼만 합법적인 유효한 결합

④ 각주 현황

- 동성결혼 합법화주

캘리포니아, 뉴욕, 매사추세츠 등 8개 주

- 딕 체니 전 부통령 딸(메리 체니), 워싱턴에서 동성 결혼 (2012. 6)

: 2006년 이미 아이 출산

: 공화당 소속인 체니 전 부통령은 동성 결혼 강력 반대했으나 딸 문제 관대(포기?)

- CNN 방송의 간판 앵커 앤더슨 쿠퍼(45)

동성애 커밍아웃(2012. 7. 2)

"사실 나는 게이"

"나는 지금 행복하고 편안하며 자부심을 느낀다"

- 노스 캐롤라이나 등 30개 주는 반대,

확정하기 어려운 주들은 주민 투표

: 종교(기독교) 동성결혼 절대 반대

: 흑인들 백인들보다 더 동성결혼 반대

⑤ 대통령 입장

- 빌 클린턴(1990년대)

: 결혼은 이성간 가능하며 동성결혼 금지

- 조지 부시(2000년대초)

: “시민결합(civil union)”으로 동성커플에
부부와 비슷한 지위 부여

- 오바마(2010년대)

: 대통령으로서 처음으로 동성결혼 공개 지지

: 동성간 결혼 허용을 하나의 인권으로

: 연방 헌법까지 바꿀 마음 없어

: 각주가 알아서

- 2012년 대선 영향

: 30개 주 반대, 8개 주 합법화, 12개 주

: 흑인 반대

: 누가 더 유리?

- 동성결혼: 유티파괴 혹은 행복권 추구?(p)